

“불화의 시대 청년 운동주의 정신 필요”

제2회 운동주 서시 문학상 선정 오태환 시인



제2회 운동주 서시 문학상에 선정된 오태환(사진) 시인은 “몸에 맞지 않아 불편한 옷을 입고 낯선 길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먼저 들었다”며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주신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 부끄러운 시편을 읽어주신 허영자 선생님과 심사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 시인은 수상 소감과 시를 쓰게 된 계기, 습작기 시절,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또한 그는 “때때로 시를 쓰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시를 그만 써야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럼에도 다시 시를 쓰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운동주 ‘서시’는 전 국민의 애송시다. 서시의 이름을 딴 운동주 서시 문학상을 수상한 소감이 남다른 것 같다.

▲ ‘서시’는 일제 강점기를 건너야 했던 지식인의 고뇌와 양심과 소명의식이 여실히 드러난 작품이다. ‘운동주 서시 문학상’은 그러한 정신을 현재에 되살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다. 그것은 또 시대는 바뀌었지만 오늘날에도 시인이 보듬고 가야 할 가치라 하겠다.

글 쓰는 입장에서 자신을 더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운동주 시인이 탄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운동주 서시 문학상 수상자로서의 소명 같은 게 있을 것 같다.

▲ 운동주는 식민지 시대를 헤쳐왔던 양심적인 지식인 청년이다. 시대와의 불화 속에서도 명리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야하는 길을 울곧게 걸어왔던 아름답고 순결한 청년의 표상이다. 그러한 모습은 자본과 정치에 위태롭게 휘둘리는 저간의 문단 풍토에 더욱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 점도 상을 제정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운동주의 모습과 정신을 마

음에 담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글 쓰는 자에게 필요한 자세일 것 같다.

—시작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다.

▲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가정(家父)이 교지에 쓴 글을 보고 처음으로 언어에 대해 매력을 느꼈다. 이후 노트에 품은 감상을 옮기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지금에 이르르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건 대학에 입학하고부터였다.

—시를 쓰는데 영향을 받았던 시인이나 작품이 있다면.

▲ 내게 가장 영향을 준 시인은 서정주였다. 습작기 무렵엔 지금에 나는 모국어의 비밀을 가장 절실하고 아름답게 그려낸 이로 서정주를 꼽는다. 그는 한국적인 정신, 전통의 부분을 가장 고풍스럽게 언어에 녹여낸 시인이다. 언어에 대한 민감한 응시가 저탄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다. 그의 돌출한 문학적 성취에 비하면 그의 전기(傳記)가 가지는 의문은 사소하다고 믿는다.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말한다면.

▲ 데뷔한 지 30년이 좀 지났다. 그간 변화가 적지 않았다. 고등학교 국어교사를 오래 했었고 지금은 고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두 번째 시집 발간 이후에는 시 자체에 대한 흥미가 없었던 것 같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작품을 거의 발표하지 않았다. 이후 창작을 하면서는 모국어의 맵시와 율법에 시선을 맞춘 시를 쓰고자 했다. 그리고 요즘은 고통과 죽음의 숙주할 수 있는 육체라는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다.

—시를 쓰기 위해 또는 문학공부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가?

▲ 누구나 그렇듯이 사람과 세상과 언어에 관심을 두는 것 외에 별다른 공부는 없는 것 같다.

—향후 계획은.

▲ 다른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시를 쓰려는 욕망 말고는 따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는 않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부끄러운 시편 수용만으로도 감사형의 교지글에 매력 느껴 문학활동 시풍 영향 준 미당 예술성은 인정 작품발표 뜸했지만 창작 욕심 여전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상 권귀순 시인 해외작가특별상 문인귀 시인

운동주 서시 문학상 본상과 함께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상’과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특별상’ 부문도 수상자들이 가려졌다.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상은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다. ‘이슬이 비치다’ 외 4편으로 수상자로 선정된 권귀순 시인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팬과 문학’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오래된 편지’, ‘백년 만에 오시는 비’가 있으며 2006년 가산문학상 시 부문을 수상했다.

권 시인은 “해외에서 모국어로 글을 쓰는 이들은 분국문단에 속하지 못하고 변방을 떠도는 자의 서러움을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다”며



권귀순 시인



문인귀 시인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운동주 서시 해외작가특별상은 재미시협과 미주시인협회 등의 통합을 이루고 동료 문인들 창작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문인귀 시인이 선정됐다. 1939년 광주에서 태어난 문 시인은 2003년 미주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미주문인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 시인은 “해외에서 대를 이으며 50년을 살아도, 그보다 많은 100년을 150년을, 혹은 500년을 더 산다 해도 우리의 모국어는 보면 불수록 더 좋은 어머니이고, 봉숭아 꽃물 들이던 누이들의 웃음소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살에서 넘어지지 않는 힘은 견딤일 것이다. 문학 또한 잘 견뎌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다”고

렌즈 속 편견 없는 세상...중증 장애인 사진전

27~29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중증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시선으로 본 세상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전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1층에서 열린다.

‘우리 시선으로 맞추는 퍼즐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장애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사물을 표현한 사진들이 전시된다.

장애인들은 가장 익숙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스마트폰으로 본인들이 남기고 싶은 기억들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촬영하여 나만의 사진퍼즐 전시했다.

전시에는 작은 염색 천에 초점을 맞춰 자연의 빛

이 빛어내는 색을 포착, 여러장의 염색천의 투시효과로 표현한 황인수(지체 장애 1급)씨의 ‘투시’를 비롯해 김성환, 김희영, 유동환, 이명훈 등 10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과 에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가 주최하며 기념식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열린다.

강사로 참여한 사진작가 임신영씨는 “카메라 프레임에서 탈출하여 자신만의 시선으로 각각의 다른 사물들을 촬영한 결과물을 볼 때 마다 의외의 사진들이 많아 감동했다”고 밝혔다.

문의 070-4113-81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도예체험·음악회...은암미술관 즐길거리 한가득

내일 ‘미술관 오디세이’



은암미술관(관장 채중기)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작은음악회가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시 동구청이 주최하는 ‘미술관 오디세이’ 일한다.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은암미술관의 소장작품인 분청과 백자 작품을 관람하며 작품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또 광주 대표 도예가 중 한명인 이치현 도예가의 강의로 직접 흙을 만져보고 물레

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도자작품(막사발 등)을 만들어 보는 체험의 시간을 갖는다.

‘달빛 오디세이’의 작은음악회도 이어진다. 피아니스트 홍예선·문수현, 해금 연주자 김경민, 첼리스트 정아름씨가 출연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가브리엘의 오보에’, ‘지클린의 눈물’ 등을 연주한다. 2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062-231 5288. /김미은기자 mekim@

어린이동화구연대회

29일 문화전당서 본선

색동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경옥)와 아시아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이 함께하는 어린이동화구연대회가 열린다.

오는 29일 열리는 동화구연대회는 2주전 예선대회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어린이 35명이 참여한다. 딱딱한 경쟁구도가 아닌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응원하며 박수를 쳐주는 나눔과 사랑의 축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색동회 광주·전남지부는 소과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이어 나라사랑과 어린이사랑을 실천하고자 어린이들에게 동화구연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 98년부터 매년 동화구연대회를 열고 있다.

현재 회원들은 동화구연가로 사회복지관과 문화센터, 도서관, 평생교육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병원 등에서 동화구연의 보급 및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늘 양석승의 ‘박장대쇼’

25일 오후 1시 광주시 동구에

자리한 복합문화 공간 ‘김빛과’(지하 1층)에서 한국감성충전 & 웃음치료 연구소 양석승(사진) 소장의 ‘제1회 시와 노래와 유머가 넘치는 양석승 박장대쇼’가 펼쳐진다.

양 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시와 노래와 유머가 넘치는 양석승 휴먼콘서트’를 25회 개최했다. 2011년 올해의 대한민국인 대상, 2011년 자랑스러운 성균관상 등을 수상했다. /전은재기자 e6621@

황현산 교수 오늘 예정 강좌 취소

광주트라우마센터 주최로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문학평론가 황현산(고려대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씨 강좌가 강연자의 사정으로 취소됐다.

광주 트라우마센터가 진행하는 ‘치유의 인문학’은 오는 11월 22일 계속된다. 문의 062-601-1974.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감정가 25,143,000,000 건물 6008평 최저가 14,1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강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임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해남 북평면 이진리 바닷가인근 교육시설 토지 3606평 건물 226평 감정가 273,000,000 최저가 273,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도로변 토지 659평 감정가 52,000,000 최저가 52,000,000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담양군 남면 만월리 만월제비로위 도로점 토지 4409평 감정가 30,000,000 최소가 30,000,000	▶서구 마록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조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구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지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신안군 중도면 우전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